

사실 '부서라 마셔라'의 술문화 때문에 화합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당히 마시면서 평소 말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고 포용력을 발휘해 준다면 화합과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일석이조의 기회인가. 다른건 차치하고라도 인간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만 있다면 지치고 힘든 현대인의 삶이 팍팍하지 않고 조금은 여유로워 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불가피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서로서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정도가 지나치지 않게 마시고 술을 권하는 문화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추스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평소에 깎듯하고 일도 잘하는데 술자리에 오면 일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건 아닌데 뒤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이성은 이미 내뿜을 떠난상태)이 있다. 술은 자신을 다스릴줄 아는 자(術)만이 진정한 술꾼으로 인정하고 상대해 주는 철학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긴장이나 불안을 해소해주고 스트레스에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성보다는 감정이 뇌세포를 지배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곁에 깊이 말없이 스며있는 술. 펠레야 펠 수 없다면 같이 친해지자. 그리고 서로를 들여다보는 감성을 가지자.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조화로운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가치가 돋보이는 것이 아닐까?



02. 사랑과 애정을 이어주는 술의 힘

박현욱 자유기고가

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가지로 나뉘본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눌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는 술을 아주 좋아하셨다. 달리 말씀이 많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술잔잔 걸치시면 농담도 잘하시고 용돈을 주시기도 하셨다. 용돈을 받으면 온전히 그 돈은 나의 자유이용

권이였다. 엄마도 그 일을 알고 계셨을까? 한번도 용돈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었으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의 비밀이었는지 아니면 엄마도 모른척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아버지와 엄마가 참 감사하고 좋았다. 술드시는 날 밤은 잠이 드실때까지 항상 아버지 옆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일은 나의 몫이었다. 가끔씩 졸면서 예예해주는 일이 나의 일이었지만 꼭 내가 듣고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평소에 안풀리는 일들이나 답답한 일들을 말로서나마 당신을 위로하신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다. 지금도 가끔 아버지의 다정다감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아버지와는 달리 엄마는 막걸리만 드셔도 취하는 술하고는 거리가 먼 시골아줌마였다. 엄마가 막걸리를 드시는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일 정도였으니까. 아주 가끔씩 부부싸움을 하시고 난 뒤에는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설탕탄 막걸리를 휘~저어 주시면서 눈웃음으로 분위기를 만회해 보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못이기는 척 엄마도 눈웃음으로 화해를 받아들이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더욱더 아버지 생각이 간절하다. 이번 추석에는 아버지 묘에 술한잔 드리러 가야겠다.

아련한 아버지의 추억이 떠올러지는 이것이 내가 긍정적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든든한 반려자를 대어주고 사랑을 더 돈독히 해준 또하나의 친구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나도 술을 좋아한 편이다. 결혼하기전 연애탈때도 남편보다 술이 세다고 남편이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으니까(굳이 변명을 하지면 내가 술에 강하게 아니라 사실 남편이 술에 약한거다). 결혼 승낙 받으러 친정식구들에게 인사시키러 간 날에도 술을 먹여봐야 사람 됨됨이를 알수 있다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밖에 앉아서 별을 보며 밤새도록 얘기시켜보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은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었던 일이 생각난다. 남편은 결혼후에 그 자리가 정말 긴장돼서 화장실도 맘 편하게 못갔다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었다. 술이 마음의 여유를 찾게도 해주지만 어떤면에서는 긴장을 고조시키게도 해주나 보다. 남편이 잠시나마 힘들긴 했겠지만 그 일을 치렀기에 이렇게 평생 반려자인 듬직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노총각으로 늙고 있을거라고 우겨댄다(여보 말은 안했지만 당신 아니었으면 오히려 내가 노처녀로 늙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남편도 내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속상한 일 등이 있을 때에는 같이 밖에 나가 술한잔 하면서 풀어 버리고 기분이 마냥 좋으면 덤으로 노래방가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린다. 이렇듯 술은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화해시켜 주기도 하며 남녀의 관계에도 관여한다. 적당한 술은 사랑을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한다.